

다른 사찰 청년회는 문 닫는데 수원 봉녕사 청년회 멋진 창립

비결이 뭐야?

사찰 청년회가 하나 둘씩 사라지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청년회 창립을 이끌어낸 사찰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원 봉녕사(주지 묘엄)가 그곳이다.

9월 9일 열린 창립회는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불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청년회 창립대회에 10명은커녕 3~5명만 참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첫 출발부터 순조로운 셈이다.

물론 쉽게 '창립'의 문턱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 지도법사 정인 스님(봉녕사 포교국장)은 "창립을 하고 싶지만 준비과정에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봉녕사 청년회가 창립법회를 봉행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청년회 창립, 어렵고 막막하다.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니다. 수원 봉녕사는 원력을 단념전부터 세워 한달의 준비, 두달의 홍보기간을 거쳐 청년회를 창립했다. 사진은 9월 9일 열린 봉녕사 청년회 창립법회 모습.

1 목표 설정

봉녕사가 청년회를 창립할 계획을 세운것은 지금부터 6개월전. 승가대학(강원)과 을원을 운영, 사찰의 특성상 아이들이 떠돌고 뛰어놀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워져 젊은 불자 대상으로 포교를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도회로 이어지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고, 젊은 불심을 잡아 사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사찰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일은 사소해 보어도 '기초공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인 스님은 "사찰의 모든 대중이 청년법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스님과 대중들의 원력이 없으면 인재발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 수원포교당서 노후우 전수불기

봉녕사가 매끄럽게 창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인 스님이 한 달 간 받은 '특별과외' 덕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님은 '잘 되는 청년회의 운영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 달 동안 꼬박 인근 사찰 청년회 법회를 참석했다.

스님이 '벤치마킹' 한 사찰은 바로 수원포교당 청년회다. 수원포교당 청년회는 19년간 지역 청년불자들의 포교 구심점이 돼왔고, 현재까지도 매주 30여명이 넘는 청년불자가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포교당 청년회 역시 정인 스님의 취지를 듣고 흔쾌히 협조에 나섰다. 그간 수원포교당 청년회가 벌였던 행사와 진행과정, 회계출납 등이 상세하게 적힌 사업계

스님·신도 등 사찰 전체의 관심·지원이 필수 다른 사찰 벤치마킹·경험자 조언 듣기도 중요

획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가 하면, 청년회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임원단을 파견해 창립법회 진행을 도왔다.

수원포교당 청년회 홍보팀의 컨설턴트(?)를 받은 정인 스님은 두달 간 봉녕사에서 열리는 일반법회와 신도모임마다 참석해 창립법회 공지를 빼놓지 않았다.

온라인 홍보에도 신경썼다. 홈페이지에는 7월 1일부터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고, 마지막 2주 동안은 팝업 공지를 띄웠다.

3 신도회·거사팀을 '멘토'로

정인 스님은 신도회와 거사팀 회를 청년회의 '멘토'로 설정했다. 청년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후원단체를 설정한 것이다.

'멘토'가 된 거사팀회 임원진은 직접 창립법회에 참석해 청년불자들의 세울 발을 축하하고, 더불어 축의금도 전달했다. 또 신도회 불자들은 이날 후원에서 과일을 내오고 다과를 준비했다. 처음 법회에 참석하는 청년불자들이 서로 서먹서먹해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수원포교당 청년회 회장 이하 임원 5명도 창립법회에 참석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들은 정인 스님과 함께 만든 <봉녕사 청년의식집>을 입구에서 나눠주고 법회에서는 목탁을 치고 피아

노 반주를 맡는 등 의식집전을 담당했다.

4 "다시 나오고 싶게"

9월 창립법회가 끝난 뒤 가진 다과시간. 20여명의 불자들이 둥글게 둘러 앉아 어떻게 청년회에 가입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한 청년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화!" "그렇게 안 봤는데"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사자가 웃음을 참으며 "봉녕사에 학생회가 없어 청년회라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다른 불자도 "그간 거사팀회에 끼어 있었으나 이제 동년배의 법우들과 함께 불법을 공부할 수 있어 기쁘다"며 "봉녕사에도 청년회가 생기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들 자리를 털고 일어나길 아쉬워하자 정인 스님이 먼저 "오늘 스님이 화나게 했습니다. 사내 찾기로 감시다"라고 외쳤다.

수원포교당 문미선 부회장은 "처음 법회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권유로 나온 상황이기에 때문에 낯설고 서먹해 한다"며 "본인이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면 일회성 참석으로 끝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통해 신뢰감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5 회원 확보 방안 모색

공간만 만들어놓고 할 일은 다했다는 듯 '이제 알아서들 해나가라'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를 선출하고, 책임지고 연락할 연락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출된 회장단과 각 부 임원진은 매주 법회 시작 전 회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끈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해 나간다.

또 회원들이 참석할 가운데 회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 향후 큰 단계로 발전할 경우를 생각해 기틀을 다진다든 생각으로 회칙을 정해야 한다.

청년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대다수의 조계종 사찰의 경우, 새로운 불자들을 대상으로 신도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기초교육 수료자들의 신청서를 확인해보면 연령대가 파악되므로, 기초교육을 수료한 젊은 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청년회를 홍보, 가입을 유도하도록 한다.

청년회 창립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대다수의 조계종 사찰의 경우, 새로운 불자들을 대상으로 신도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기초교육 수료자들의 신청서를 확인해보면 연령대가 파악되므로, 기초교육을 수료한 젊은 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청년회를 홍보, 가입을 유도하도록 한다.



숙명여대 불교학생회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이예요, 언니!"

9월 11일 오후 8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회관 402호 문은 늦게까지도 계속해서 열렸다. 반가운 얼굴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미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학생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숙명여대 불교학생회(지도법사 일주·이하 숙불회) 동아리실에서 월요일마다 벌어지는 풍경이다.

숙불회는 올해로 41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63년 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태동을 이끌어낸 주축 대학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80~90년대 대학가

최양은 "양적인 결과에 치중하기보다 진심을 다해 법우들에게 부처님 법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면 포교는 저절로 된다"며 원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활동은 젊은 여성불자 특유의 '원력'과 '신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흔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성친구들과 만남을 갖거나 유흥으로 결속을 다지는 대학생들이 많지만, 숙불회는 '법회'와 '기도'를 통한 화합을 이끌어내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매주 월요일 40여분에 이르는 질서행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성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일까? 숙명여대 불교학생회는 자매처럼 끈끈하고 화기애애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11일 지도법사 일주 스님과 숙불회 회원들이 모여 창립회 준비회의를 하고 있다.

기도법회 통해 화합과 결속 다져

41년 전통 비결은 '원력과 신심'

풍속이 바뀌면서, 회원수가 급격히 감소해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신입생을 상대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는 튼튼한 학생회를 자랑한다.

이는 '기수'를 따지는 등의 경직된 동아리문화에서 탈피, 모두에게 열려있는 숙불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최 회장(가주자원경영학과 04)은 회장을 늘리기 위해 일반 학생들에게 포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연중상시 문이 열린 개방적인 분위기로 숙불회를 탈바꿈시켰다.

때문에 숙불회에는 새내기 뿐 아니라 뒤늦게 가입한 2~3학년들도 많다.

지난해부터 독특한 전통도 생겼다.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회장 및 임원단이 함께 사찰을 찾아 '신입법우 유치 발원' 기도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올해에는 내부적 결속 뿐 아니라 대외 활동을 늘려 적극적으로 포교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이미 (사)풍경소리와 협약을 맺고 캠퍼스 곳곳에 풍경소리 게시판을 부착했다. 또 10월 중에는 숙불회 회원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법회'를 봉행한다. 김보라(경영학과 05) 회장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앞으로 숙명여대 학생들 중에 '숙불회'의 존재를 모르는 이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월 30일 오후 4시 숙명여대 정자홀에서 열린 '제4회 숙불회 창립제'를 앞두고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은 "창립제를 통해 일반 학우들은 물론, 연락이 끊긴 동문선배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402호를 찾아달라"고 입을 모았다. 글·사진=이은비 기자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의 시대 제대로 알아!"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주세요.

출생의 비밀 유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제4회 대원상(大圓賞) 시상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4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흥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며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상부문

- 대 상 :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2,000만원

• 특별상: 3곳 -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수상자 선정

- ① 대상 승가 부문은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수상합니다.
-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 ③ 특별상은 접수한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중에서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불자, 단체들 중에서 선정합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

- ①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일반 추천 접수와 대원상수상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한 추천 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 ② 재가 부문 수상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추천할 수 없고, 단체 부문도 수상 후보 단체의 대표나 임원 등이 직접 추천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의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① 제 4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관련 부문 실적 자료 첨부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① 접수기간: 2006년 10월 1일 ~ 10월 31일
- ② 접수 및 문의처: 본 원 사무국, 우121-74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02)719-1855, 2606
- 홈페이지: www.kbpf.org / e-mail: kbpf@kbpf.org

접수방법: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작소인 유료)

시 상

- ① 시 상 일: 2006년 12월 1일(금)
- ② 시상장소: 추후 개별 통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홍 승 희